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6. 5. 2(월) 총2매(본문2)	
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상석, 사무관 박정현, 주무관 신동기 • ☎ (044)201-3412, 3418	
보 도 일 시	2016년 5월 3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2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, 서초구 시범사업 본격 시행

- 스마트폰에서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가능 -

-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태블릿피시(PC)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·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“부동산 전자계약”을 5.3(화) 출시하고, 이 날부터 서울 서초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현재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는데 있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필요한 중개의뢰인(매도·매수인, 임대·임차인)의 서명은 태블릿피시(PC)로만 가능한데, 이번에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, 서명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공급하게 된 것이다.
- 당초, 보험 상품의 전자계약처럼 큰 화면의 태블릿피시(PC)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서명도 받는 것으로 예상했으나, 스마트폰의 기술발달로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높아져 직접 열람이 가능하고 태블릿피시(PC) 구입에 따른 중개사들의 불편을 고려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게 됐다.

-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에서 '플레이(Play) 스토어' 또는 국토교통부 '전자계약 누리집(irts.molit.go.kr)'에 접속하여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.

《 설치방법 》

- ① 스마트폰 → 플레이(Play) 스토어 → '부동산 전자계약' 검색 → 설치
- ②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(irts.molit.go.kr) 접속 → 로그인 → (우측상단) '전자계약 앱' → 설치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”면서 “내년 단계별 전국시행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,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도록 교육·홍보에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- 한편, 서울 서초지역에서 주택매매·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여 케이비(KB)국민은행, 신한카드에 대출 신청하면 대출금리 우대혜택(KB국민은행 0.2%p↓, 신한카드 1.95%p↓)과 함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고 실거래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박정현 사무관(☎ 044-201-34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